

민요춤 <돈돌라리>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본 지역춤 활성화 방안연구

이 미 영*

I. 서론

II. 민요춤 <돈돌라리>의 문화적 특성

III. 민요춤 <돈돌라리>를 통해 본
지역춤 활성화 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서 지역 문화정책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지역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정책과 새로운 문화영역인 '생활문화'담론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문화사회와 마을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문화정책의 기조로서 '문화민주주의'개념의 확산과 실천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의 정책 변화가 있다. 즉 '문화민주주의'는 전통적 관점에서 유지되어온 예술가와 대중간의 일방적 소통을 거부하고, 대중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권과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중에게 균등한 예술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동등하게 문화 생산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표방한다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을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로 보지 않고, 시민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자원으로 변환시킨 이 같은 정책 기조는 21세기 문화사회로의 진입에서 예술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해내는 데에 초점이 있다.¹⁾

이러한 지역 문화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지역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행해지고 있다. 즉 도시재생산업의 변화키워드는 예술이며, 공동체 활성화는 교육을 통해 서만이 가능하다는 주요한 발견과 함께 각 지역에 예술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이 부각된다. 주민들은 예술교육을 통해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일상회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술로 도시를 살리는 것이, 지역주민과 높은 수준의 공연을 다 살리는 사회활동의 길이라는 것이 영국의 게이트헤드(Gateshead)와 같은 예술도시 성공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춤은 항상 역사적으로 뚜렷한 사회적 역할이 있었다. 유럽의 르네상스시대에 궁중춤은 귀족들의 사

* 국민대학교 교수, lmyhmg@hanmaill.net

1) 용호성(2012), 문화정책맥락에서의 커뮤니티아트, 『미술세계』 337, pp.90-91(성북문화재단사업 운영 및 성과연구 결과보고서(2017), p.9 재인용).

교와 결혼식 등 생활과 의식에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찍이 우리민족의 고대제천의식을 거행했던 여러 흔적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의식에서 춤이 사회적 역할을 하였다.²⁾ 이처럼 한국춤은 사회적 역할로서 각 지역마다 노래와 춤을 추는 가무백희 등 악가무일체가 행해졌다. 가령, 사당패의 경우 동네에 과거급제자가 나오면 잔치에 놀아주기 위해 공연을 하였다. 또 고대제천의식의 축제는 파종과 수확의 농경세시의례와 직결되어 있어서 계절 제의로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음주가무로 농악과 같은 놀이판과 굿판을 벌이며 신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소원을 빌었다.

이와 같이 한국춤은 의식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자발적, 지속적, 공동체적인 노래와 춤, 역사와 문화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다. 한국춤 중에서도 지역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춤의 대표적 자산 중 하나가 민요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즐겨하는 민요의 사용빈도에 비해 민요춤의 인식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통속민요와 노동민요 등 민요 종류에 따른 혼동과 함께 민요춤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오류를 발견한다. 이에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특성을 지닌 민요춤의 발굴과 정리·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구나 통속민요춤의 경우, 민요에 깃든 내용과는 전혀 상관 없이 신무용기 이후에 만들어진 기본동작위주로의 편편일률적인 동작나열을 하고 있다. 노동민요춤의 경우는 지역별 다양하게 민요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과 움직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올바른 민요춤의 활용과 민요춤의 콘텐츠개발을 한 좋은 사례 중 하나인 <돈돌라리>춤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 지역춤 활성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고찰과, 영상분석을 통해 <돈돌라리>의 양식을 공유성, 자율성, 창조성 등으로 살펴보고, 지역춤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문화적 특성인 공유성, 자율성, 창조성은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특징적 요소이며³⁾, 지역 거버넌스의 주요 키워드⁴⁾라 할 수 있다. 이 특성들은 민요춤이 지니고 있는 속성⁵⁾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인 민요춤 <돈돌라리>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동영상분석은 무용분석방법론 중 하나인 상호텍스트성 방법(Intertextuality)으로 한다. co-text는 움직임, 음악, 무대 및 소품으로, con-text는 시대적 발생 배경과 작품내용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동영상은 유튜브에 검색어로 <돈돌라리>를 찾으면 몇 개의 영상(朝鮮舞蹈, 평양민속예술단, 함경남도 예술단, 통일부 UNITV, 북청사자놀이와 돈돌라리, kcntv한중방송, MBC강원영동, 조선의 오늘)이 있다. 이러한 <돈돌라리>영상들 중 가장 무대예술적으로 완성된 평양민속예술단이 공연한 “조선무용-돈돌라리”(https://www.youtube.com/watch?v=mt24cumH1Ec&t=4s)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선행연구로는 김채원(2017)의 “북한춤의 전통성과 현대성에 관한 일고찰”, 전경옥의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에서는 돈돌라리를 민속놀이로 규정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다. 박경선(2010)의 “25현 가야금 3중주를 위한 <돈돌라리>의 분석연구”, 유승희(2007)의 “민요주제의 25현 가야금 작품 고찰”은 돈돌라리 민요보다는 25현 가야금 작품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며 돈돌라

2) 김수인(2018), 문화예술교육사와 무용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조사, 『대한무용학회』 제16회 국내학술대회발표논문, p.74.

3) 오레지나(2017), AI시대 무용교육의 전문성과 핵심역량, 『한국무용교육학회』 제24회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 p.29.

4) 성북문화재단(2015~2016), 성북문화재단사업 운영 및 성과연구결과보고서, p.13.

5) 이애현(2014), 민요춤연구, 『한국무용연구』 32(3), p.235.

리춤에 대한 언급은 없다. 최영란(2002)의 연구는 “북한 가무놀이 <돈돌라리>의 특성과 남북 재현 비교” 등을 포괄적으로 서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민요춤 <돈돌라리>를 통해 본 지역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적 특징을 살리고 민요춤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춤을 창작화하여 대표적 공연콘텐츠로 발전시킨 민요춤 <돈돌라리>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민요춤 <돈돌라리>의 문화적 특성

민요춤 <돈돌라리>는 “돈돌라리”, “돈돌나리”, “돈돌날이” 등 명칭이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돈돌라리”를 검색하면 평화문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조선향토대백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문화콘텐츠닷컴>에서 사용하고 있다. “돈돌나리”는 한국사전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국어국문학자료사전>과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돈돌날이”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세시풍속사전>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한국민속문화사전>에 등장한다. 이렇게 같은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우리말 샘>에서 규정하는 규범표기인 <돈돌라리>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번 II장에서는 민요춤 <돈돌라리>의 양식분석을 한다. 우선 con-text인 <돈돌라리>의 시대적 발생 배경과 전승양상 등의 내용과, co-text의 구성인 음악, 움직임, 무대구성 및 소품, 의상 등의 요소들을 살펴본다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려고 한다. 문화적 특성은 공유성, 자율성, 창조성 등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공유성은 민요춤<돈돌라리>의 전승배경에 나타난다. 즉 북한의 경우, 문화예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민요춤을 일찍이 정책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공유하도록 적극 권장하였기 때문이다. 좀 더 상세한 발생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은 <무용예술론>에서 “무용은 지난날 사람들의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문화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방의 고유한 생활과 풍습이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그 지방 인민의 노동생활과 독특한 생활풍습을 반영하여 발전하여온 무용이 민속무용이다”라고 기술하면서, 대표적인 민요춤으로 <돈돌라리>를 꼽았다.⁶⁾ 이렇게 북한에서는 민요춤을 정책적으로 적극 발굴 및 발전시켜 공유화함으로써 지역춤 활성화에 나섰다.

민요 <돈돌라리>의 곡명은 뒷소리에 “돈돌라리 돈돌라리요”라는 입타령이 나오는 데서 연유한다. <돈돌라리>의 민요가 가무놀이 <돈돌라리>로 발전한 것은 군무형태인 달래춤과 결합되면서 부터이다. 함경남도 북청지방에서는 옛날부터 한식 다음날 부녀자들이 북청군 남대천 주변에 달래를 캐면서 하루를 유쾌히 보내는 풍속이 있었다. 부녀자들은 달래 바가지를 들고 이곳저곳에서 달래를 캐면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흥겨운 군무를 추기도 하였는데, 이 때 추는 춤을 “달래춤”이라고 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달래춤”이 민요 “돈돌라리”와 결합되어 가무놀이 <돈돌라리>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돈돌라리>의 어원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기원설은 ‘달래춤’에서 유래되었다는 기원과 1920년대에

6) 김정일(1992), 『무용예술론』(평양:조선노동당출판사), p.10(최영란(2002), 북한 가무놀이 돈돌라리의 특성과 남북 재현 비교, 『체육사학회지』 9, p.2 재인용).

창작된 신민요란 설로 구분된다. 하지만 “돈돌라리”는 신민요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어 신민요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북청의 ‘달래춤’에서 유래되었다는 기원이 더 신빙성있다.⁷⁾

이처럼 본 연구 주제인 민요춤 <돈돌라리>의 바탕이 되는 음악, 즉 민요 <돈돌라리>는 함경남도 북청군·신창군·덕성군·단천군·이원군과 양강도의 갑상군·풍산군 등지에 널리 퍼져 전해온 가요의 하나이다. 이 중에서 북청 모래산의 돈돌라리가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오늘날 북한에서는 군중무용곡으로 광범하게 보급되고 있다. 또한 함경남도 북청군을 중심으로 추어진 이 춤은 민요 <돈돌라리>에 맞추어 추며, 함남도립예술단에서 창작된 이후 중앙예술단체를 비롯해 여러 예술단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창작에 손을 대었고, 군중무용으로도 추어질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⁸⁾.

<돈돌라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목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다. ‘돈돌’이라는 말이 ‘제 자리로 돌아온다’, ‘돌고 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순환적 자연관이나 낙관주의적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동틀 날이 온다’라는 뜻으로 과거 일제강점기 백두산에 장군별이 떴으니 광복의 동이 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가난하고 살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잘 살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보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경우 수많은 외침과 지배계층으로부터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희망을 일구어왔던 조선 민족의 끈기와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가 된 우리 땅이 다시 우리의 손에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항일의 성격을 띤 민속놀이로 부각되었다.

정리하면, 민요춤 <돈돌라리>는 함경도 북청지방의 “달래춤”이 민요 <돈돌라리>와 결합한 형태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항일정신으로 “동틀날이 온다”로 변화되면서 조국광복을 염원하며 추는 춤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 이후 북한에서 <돈돌라리>는 북한 위정자들에 의해 북한의 혁명의 지에 부합하는 민속무용으로 개조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함경도 지역의 피난민들에 의해 남한에 전승되어 북한을 대표하는 민요로 자리를 잡아 남북한이 함께 부르고 추고 있는 주요한 민요춤이다.⁹⁾

이와 같이 민요춤 <돈돌라리>의 전승배경에 나타난 생활·문화·예술로서의 공유성은 북한에서는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된 일면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민요춤을 포함한 가무놀이가 문화예술적인 면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한 면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자율성은 민요춤 <돈돌라리>가 남한에 정착되어온 과정과 현재 행해지고 있는 양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래 함경남도에서 시작된 민요춤 <돈돌라리>가 한국전쟁이후 월남한 북한의 함경도 주민들이 속초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동해안 지역의 특색을 뚜렷하게 지닌 이주민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남한에서는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된 <돈돌라리>민요를 속초에 정착하였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가 6.25전쟁이후에는 속초지역 실향민들의 아픔을 간직하는 노래로 변해갔다. 속초에 살고 있는 실향민은 고향을 북쪽에 두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은 민족분단의 비극적 역사의 희생자이다. 이들의 함경도 문화이식과 이주정착은 속초 속의 함경도라는 새로운 융합문화를 창조하였으며, 아울러 분단한국의 한을 간직한 채 속초에서 전승의 꽃을 피우고

7) 박경선(2010), 25현 가야금 3중주를 위한 <돈돌라리>의 분석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8) 김재원(2017), 북한춤의 전통성과 현대성의 관한 일고찰, 『무용역사기록학』 47, p.143.

9) 김내창(1992), 『조선풍속사』(서울:사회과학출판사), p.342.

최영란(2002), 북한가무놀이 돈돌라리의 특성과 남북재현비교, 『체육사회학회지』 9, pp.1-15.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2018>, 8, 2.>.

있다. 따라서 속초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남한의 <돈돌라리>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전승된 ‘가무놀이’ 또는 ‘노래춤’으로서 그 가락과 춤사위가 상징적이며 복합적인 의미를 내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한 속초에서 자율적 형태로 이루어 정착한 민요춤<돈돌라리>는 1950년대 전파된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고 유지한 문화적으로도 가치있는 춤, 노래, 음악, 놀이 등의 융합적 형태를 지닌다.

지난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1999년 9월 15~17일, 제주도)에 이어, 속초에서 개최된 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1999년 10월 9~10일), 이후 속초 문화원에서 매년 행해졌으며, 올해 세계한민족네트워크대회(2018년 8월 28일)에서도 <돈돌라리> 특별공연을 가졌다. 이는 6.25를 겪은 속초 실향민들에게 고향의 전통민속의 부활이라는 수확과 함께 망향의 한을 달래고 통일정서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⁰⁾

현재 속초지역에서는 문화원의 활동 가운데 함경도 실향민의 민속인 북청사자놀음과 돈돌라리의 전승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함경도 출신 뿐 아니라 속초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율무형식의 원형에 입각한 돈돌라리 강습회를 여는 등, 민속놀이와 민요전승에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셋째, 창조적 전통문화로 전승된 민요춤<돈돌라리>는 co-text의 구성인 음악, 움직임, 무대구성 및 소품, 의상 등의 요소를 통해 창조성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민요춤 <돈돌라리>에 사용된 음악은 민요 <돈돌라리>이다. <돈돌라리>의 가사와 장단은 손목춤에 맞게 단순하면서도 희망찬 곡조를 담고 있다. 특히 <돈돌라리>의 민요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1) 악보

“(여음)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리라리라리 돈돌날이요/
리라리라리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모래 청산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시내강변에 돈돌날이요/
시내강변에 돈돌날이요/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모래 산천에 돈돌날이요/

10) 서정욱(2018),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28일 속초에서 개막,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8271005208049>>, 2018. 8. 31.>.

11) 원래 북청지방은 모래로 형성된 산과 밭이 많기 때문에 주로 시내강변의 백사장에서 <돈돌라리>춤을 빙글빙글 돌면서 둥그렇게 원을 짓고 추었다. 속초문화원 홈페이지, <http://sokcho-culture.com/scculture/?cate_depth=4&did=3154&module=view&page=2&parent_num=401300000&seq=1423804096>, 2018. 7. 10.>.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보배 산천에 돈돌날이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 강산아/
 리라리라리 돈돌날이요/ 리라리라리 돈돌날이요”.

위와 같이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사를 얼마든지 붙일 수 있고, 민요를 부르는 사람의 고향 산천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도 있다.

예전부터 부르던 위의 “돈돌라리” 내용을 해방 이후 북한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자, 원래의 것을 많이 개작하였다. 북한의 체제가 우수하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북한이 마치 지상낙원인 것처럼 가사를 아래 내용과 같이 개작하였다.

“(전렴)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보배산천에 돈돌라리요/
 산에 가면 산이 모두 황금산이라/ 열매가 주렁져 돈돌라리요/
 들에 가면 들이 모두 풍년별이라/ 금나락 넘쳐나 돈돌라리요/
 집집마다 찾아가면 웃음꽃이라/ 기쁨이 넘쳐나 돈돌라리요/
 일터마다 찾아가면 노래 소리라/ 일하기 흥겨워 돈돌라리요/
 간 곳마다 경치 좋고 살기가 좋아/ 금수라 이 강산 돈돌라리요”¹²⁾

이처럼 <돈돌날이>는 8장단으로 구성된 짧은 민요로서, 3소박(3분박) 4박자의 장단에 맞춰 흥겹게 노래한다. 사용하는 음으로는 ‘솔·라·도·레·미’ 5음이 있는데, 두 장단에 걸쳐 ‘미’에서 시작하여 위의 ‘라’까지 올라갔다가 아래 ‘도’에서 반종지하고, 다음 두 장단에서 다시 ‘미’에서 시작하여 아래 음인 ‘솔’로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종지하는 선율 진행을 갖는다. 음조식은 경기도 지역에서 보이는 경토리의 음조식과 유사함을 갖는다.¹³⁾ <돈돌라리>는 리듬이 선명하고 절도가 있으며, 흥겹고 낙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곡조는 부르기 쉬운 선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기는소리’, ‘받는소리’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다. 이것은 노래가 무곡으로 발전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하겠다.

이 민요에 맞춘 춤의 요소인 움직임과 구성, 의상 및 소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요춤<돈돌라리>를 창조적으로 무대화시킨 평양민속예술단이 공연한 “조선무용-돈돌라리” 동영상을 토대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① 우선 작품 총 길이가 약 5분정도 되며, 음악의 구성상 세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부분은 자진 모리장단으로서 춤 구성과 움직임 흐름 중심으로 언급하겠다. <그림 1>, <그림 2>처럼 객석 입장에서 볼 때, 무대 왼쪽 하수 쪽에서 옆 막 맨 뒤쪽 막(Up Stage Right)부터 여자 무용수 3명이 옆모습으로 걸어 들어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막(Center Stage Right)에서 무용수 3명이 나오고, 마지막에 차례로 맨 앞쪽 막(Down Stage Right)에서 무용수 3명이 나와 다함께 앞을 본다(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요/ 리라리라리 돈돌날이요/ 리라리라리 돈돌날이요에 맞추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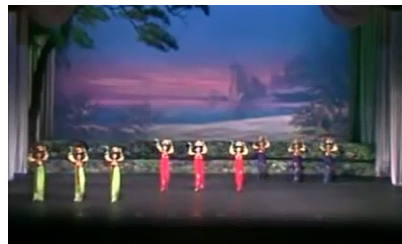
춤동작은 왼손은 머리에 인 함지(바가지를 함지 안에 얹어놓았다)에 얹고, 오른손은 앞·뒤로 팔을 저으며 손목을 살짝 살짝 꺾으면서 고개 짓과 함께 사뿐사뿐 걷는다.

12) 전경욱(2002),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 『민족무용』 1, p.159.

13) 유승희(2017), 민요주제의 25현 가야금 작품고찰,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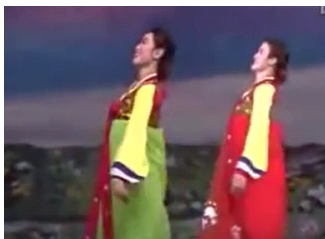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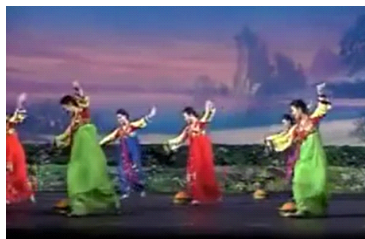


〈그림 2〉

② 무용수들이 이동하여 무대 전반에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펼쳐서 선다. 왼손을 바구니에 얹고 오른손으로 손목을 꺾었다가 펼치는 손목 돌리는 동작을 주로 하다가, 합지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돈돌라리〉춤의 특징 중 하나인 절름거리는 듯한 발동작으로 독특한 움직임을 한다. 〈그림 3〉처럼 두 팔을 차렷 자세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또는 〈그림 4〉처럼 양팔을 사용하며 제자리에서 굴신하면서 돌거나 이동한다.



〈그림 3〉



〈그림 4〉

③ 무대 정 가운데로 모여들어 합지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상체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하는데, 이때 몸통을 좌·우로하며 손목을 돌려 얼굴을 살짝살짝 가리우는 동작은 어깨춤에 이은 손목춤의 묘미라 할 수 있다.



〈그림 5〉

④ 작품이 2분 정도 되었을 때 무용수가 세 명씩 짝을 이루어 〈그림 1〉처럼 흥겹게 걸어서 이동한다. 큰 반원의 형태로 앉아 〈돈돌라리〉의 특징적 춤 중 하나인 바가지를 두드리며 춤을 춘다. 〈그림 6〉처럼 손목을 꺾고 양팔을 저으며 상체를 뒤로 젖히기도 하면서 바가지를 음악에 맞추어 두드린다.



〈그림 6〉



〈그림 7〉

⑤ *둘째 부분은 민요 〈돈돌라리〉의 원래 음악을 살려 음악의 선율이 약간 달라지면서 느린 춤을 추는 장면으로 춤의 흐름이 바뀐다. 〈그림 7〉처럼 큰 반원의 형태에서 원안으로 뛰는 듯 모여들어 “좋다”, “좋지”라고 무용수 전체가 소리를 낸다. 또한 고구려의 ‘동동무’와 같은 특색있는 춤으로는 깊은 굴신으로 두 팔을 나란히 내려 버드나무가지모양으로 고개와 상체를 숙였다가 상체를 세우는 동작이 있다.

⑥ *세 번째 부분으로서 작품길이가 3분정도 되면, 큰 반원의 형태를 거쳐 〈그림 8〉처럼 무대 하수맨 앞에 일렬로 함지를 머리에 이고 앉는다. 음악 선율이 잠시 느려지다가 점점 빨라지는데, 느린 선율에 3명의 무용수가 먼저 나가 함지를 머리에 이고 춤을 추고, 그다음 선율이 점차적으로 빨라지면서 3명의 무용수가 나와 함지를 바닥에 두고 맨손으로 춘다. 이때 처음 나왔던 3명의 무용수는 〈그림 9〉처럼 상수 옆 막쪽(Down Left에서 Up Left까지)에 세로로 줄지어 앉는다. 작품이 4분 정도 되었을 때, 빠른 선율에 맞추어 마지막 3명의 무용수가 합세해서 무대 중앙에 반원의 형태를 이룬다.



〈그림 8〉



〈그림 9〉

⑦ 반원의 형태에서 〈돈돌라리〉의 절정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바가지 치는 부분이 나온다. 좌·우한 명씩 나와 둘이 대무를 추다가 〈그림 10〉처럼 마치 오고무의 형태로 한 명의 무용수가 가운데에서 뒤, 좌·우 무용수들의 함지 속 바가지를 치며 춤을 춘다.



〈그림 10〉

⑧ 작품 4분 30초정도에 민요〈돈돌라리〉의 선율이 빠르게 바뀐다. 앞 무대에 무용수들이 두 줄로 섰다가 무대 맨 앞 한 줄로 만들고 앉으면서 무용수들이 “좋다”를 외치며 〈그림 11〉처럼 똑같은 동작으로 작품을 마친다.



〈그림 11〉

위와 같이 〈돈돌라리〉의 특징적 동작은 경쾌한 발걸음, 고개 짓과 함께 손목동작을 한다는 것이다. 즉 손목을 꺾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거나 손목을 돌리는 동작을 한다. 발동작도 절름거리리는 듯한 움직임으로 어깨 짓과 다양한 팔동작을 함께 한다. 또 함지박속의 바가지를 혼자 또는 여럿이, 오고무의 형태 등 다양하게 두드리며 춤을 춘다. 이처럼 〈돈돌라리〉춤동작은 손목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동작과 경쾌한 발동작, 오브제를 활용한 움직임에서 다른 춤들과 구별된다. 또한 동작과 동작연결시 양팔을 들고 뽕그르 제자리에서 돌기 동작을 하거나, 무용수들의 일체무로서 흥이 나도록 절도감있게 추다가 원을 지어가면서 반복을 할 때 더욱 고조감을 주어 추기도 한다. 빠른 스피드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추어 동작의 라인을 정확하게 남기기, 상체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동작으로 팔 라인을 길게하기 등의 특징이 있다.

무대구성 또한 시각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일렬, 이렬, 반원, 원형 등의 단순한 구성으로 변화를 주었다. 전통적인 민요춤의 특징이 움직임을 반복나열식으로 한다면, 민요춤〈돈돌라리〉는 이를 보완하여 빠른 템포의 여러 악기가 사용된 음악과 이에 맞춘 변화무쌍한 춤동작이 있다. 또한 음악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창조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 민요춤〈돈돌라리〉는 민요에 맞춘 윤무(輪舞)형식의 가무놀이에서 무용 창작가들이 새롭게 개작하고 창조한 것이다.

음악, 움직임과 무대구성 외에도 위 그림들에서 볼 수 있듯, 의상이 노랑 저고리에 빨강, 연두, 파랑의 매우 화려하고 민속적이다. 이는 정색(正色)과 간색(間色)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몸 라인이 나타나도록 밀착되어 있어서 토속적인 느낌보다는 무대화된 세련미가 보여 진다. 또한 함지 안에 바가지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함지를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하는 함지 춤, 함지를 내려놓고 바가지를 치는 춤사위가 창조적이었다. 템포가 매우 빠르며, 관현악의 음악 반주에 맞추어 8소절로 된 아주 짧은 민요를 반복하면서 높은 기량의 춤을 추는 등 짧은 시간 안에 무대 위에서 다양하고 많은 볼거리 변화를 주어 창조하였다. 따라서 민요춤〈돈돌라리〉는 민족의 고전유산을 현대적 미감과 정서에 맞게 재창작된 민속무용풍 춤으로, 또한 지역적 색채가 짙은 무대예술작품으로서 의의가 있다.

III. 민요춤 <돈돌라리>를 통해 본 지역춤 활성화 방안

II장에서 살펴본 민요춤 <돈돌라리>의 문화적 특성인 공유성, 자율성, 창조성은 북한에서 정책적으로 공유화시킨 <돈돌라리>의 전승배경, 남한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돈돌라리>지역축제, 그리고 창조적인 작품으로 탄생된 <돈돌라리>공연콘텐츠개발로 각각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이에 부합된 지역춤 활성화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공유성의 측면은 민요춤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킨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주체예술의 범주에 있어서 다소 왜곡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그 안에서 ‘민속(전통)성’과 ‘시대성’을 바탕으로 민족무용을 계승하고 현대화한 북한의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무용예술론’을 발행해 북한무용의 기본을 세워준 김정일 위원장이 주체무용 건설에 있어서 제일 먼저 주문한 것은 “민속무용을 명곡에 기초하여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까”라는 것으로서, 민족적 특성을 살리고 이를 공유화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이렇듯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을 위한 지역거버넌스를 한다면 지역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거버넌스는 협치(協治)로 번역되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통치방식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수단이다.¹⁵⁾ 북한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적 지침을 한 내용은 새로운 춤가락을 적극 탐구할 것, 생활과 밀착해 생활적인 것으로 만들 것, 무용을 소품화하여 그 예술적인 수준을 높일 것, 무용의 형상수준을 높이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양하게 살리라는 것으로, 이는 지역에서의 생활문화예술측면의 소중한 정책이라 하겠다.¹⁶⁾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민요춤 <돈돌라리>이다. 북청지역에서 발생한 민요춤<돈돌라리>는 민요와 함께 그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린 예술브랜드이다. 즉 국가의 지원 하에 지역 거버넌스로 확장시킨 예술로서 일상적 삶에서 출발한 대표적 작품이라 하겠다. 예술을 일상적 삶과 격리된 특정한 공간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일상적 삶에서 바로 예술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공유화하며 이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사유의 전환이 생활예술이라는 토대를 부여함으로써 예술을 하찮은 것으로 비하하거나 대중적·통속적이라고 평가절하시키는 개개인의 활동들이 다층적이거나 다원화된 가치체계속에서 상생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예술의 발견과 소통은 우리의 삶을 더욱 더 풍요롭게 만든다. 일상의 예술적 삶을 통해 비로소 인간본성의 완성이라고 할 생명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존재론적·가치론적 삶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순수와 실용, 고급과 저급, 귀족과 대중,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이분법을 제거해야한다.¹⁷⁾ 따라서 <돈돌라리>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민요춤들을 지역거버넌스화 하여 일반인들의 일상적 삶과 공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지역춤을 활성화해야할 방안이라 생각한다.

둘째, 자율성은 지역과 사회, 사람이 상생하는 예술적 실천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예술이어야 한다. 민요춤 <돈돌라리>는 북한의 북청지방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와 남한의 속초지역에서 현재까지도 자율

14) 리만순(1987), 명곡과 무용창작, 『조선예술』 1, p.39.

한국자원봉사문화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_culture&logNo=221329914465>, 2018. 8. 8.>.

15) 이명진, 홍성태(2016), 자치민주주의의 사회적 요건,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9, pp.331-355.

16) 김재원(2017), 북한춤의 전통성과 현대성에 관한 일고찰, 『무용역사기록학』 47, pp.128-136.

17) 오윤자(2018), 『철학과 함께 춤을』(서울:북마크), p.177.

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두레형태와 같은 지역축제형태의 사회적 의미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고 출 수 있는 민요와 민요춤이 하나로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 아오모리지역에서 매년 8월 2일에서 7일경까지 행해지고 있는 “네부터 마즈리”는 등불축제로 마을 주민들이 악기를 다루고 춤을 추고 거대한 등불을 만드는 오래된 대표적 지역축제이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디자인을 하는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가 되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는 민요춤을 활용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민요춤 축제”가 되는 것이다.

지역축제의 사회적 임팩트는 지역민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때 저절로 사회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의 성과를 벤다이어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임팩트’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도성, 혁신성, 협력성, 확산성,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는 사회변화 등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이며 자율적 참여와 함께 지속가능한 생활의 일부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반드시 주민들에 의한 두레형태의 지역축제이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동기부여인데, 지역축제가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직업창출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 민요춤이 매개가 되어 각 지역마다 특성있는 지역축제를 첫 단계에서는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 각자 생활의 연속상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시작해야 한다. ‘돈이 순환되는 마을 경제학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복잡한 사회과제에 직면한 지역이 풀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행위이다. 즉 주민의 마음에 호소해 행동을 환기하고 모두가 행복한 기분이 되는 ‘납득해(納得解)’를 만들어 내는 행위인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¹⁹⁾ 지역마다의 사회과제 현상파악을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통인식과 동력이 필요불가결하다. 각 지역에 새로운 빛을 비춰 매력을 발굴하여 지역살리기를 하는 것, 그 매력으로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향적인 운동을 일으켜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추구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일순간의 현상으로 그치면 안된다.²⁰⁾ 생활 속에 뿌리박혀 지속적으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던 옛 사람들의 지혜와 같은 두레의 형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에 사는 오늘날은 다양하고 융합적인 조합의 형식으로 디자인해서 각기 다른 특성화된 지역축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활동으로 사회적 소통에 대한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장기적 성과지점으로 삼아야 지역춤이 활성화가 된다.

셋째, 창조성의 부분은 궁극적으로 지역춤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내용이 된다. II장의 민요춤 <돈돌라리>의 양식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북한은 민속무용의 본색을 살리기 위해 지방색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게 하여 춤가락을 만들어내야 하며, 무대미술이나 의상도 시대와 지방색을 살리고 민요를 토대로 하여 선율과 장단을 살린 음악을 사용하면서 계급적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²¹⁾

이러한 포크로리즘적 견해에 지방색이 짙은 민족고전유산을 현대적 미감과 정서에 맞게 재창작한

18) 한국자원봉사문화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_culture&logNo=221329914465, 2018.7.6.>.

19) 이수디자인프로젝트(2011), 『디자인이 지역을 바꾼다』, 김해창(역)(서울: 미술출판사, 2014), p.254.

20) 앞의 글, p.85.

21) 최승근(1979), 민족무용의 본색을 살리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예술』 5, p.25-27.

대표적 춤이 〈돈돌라리〉이다.²²⁾ 민요춤 〈돈돌라리〉는 무대에서 빛을 보기까지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민속무용 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국립민족예술극장 배우 출신인 김주봉²³⁾이 함경북도 북청군에 사는 탁진에게 〈돈돌라리〉를 채록해 재형상화하였다. 이후 많은 안무가들에 의해 새롭고 다양한 버전으로 무대화되면서 북한 민족무용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었다.²⁴⁾

이렇게 전통민요춤의 원형을 재구성, 재창작화하는 북한의 전통계승현상은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형문화재법으로서 세대 간 전승과정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형유지’에 대응하는 ‘전형(典型)유지’원칙을 도입하고자하는 의도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예술은 개인적 일상의 삶에서 ‘공적인 활동적 삶’으로의 전이를 촉진하는 것에 그 역할이 있다. 예술가와 지역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창작활동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예술브랜드가 필요하다. 이때 특정 공동체의 일상이나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예술작품의 동인을 발견하되, 거기서 단순히 소재를 취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와 예술가가 깊이있게 교감하면서 미학적 완성도가 높은 참여의 예술을 일구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춤 활성화를 탐색하는데 예술콘텐츠개발의 위치는 창조성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도구적 활용차원을 넘어 다양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새로운 예술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²⁵⁾

사회현상을 반영하되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종국적으로 이들과 부합되는 창조적인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 민요춤〈돈돌라리〉와 같은 북한무용 창작의 이념은, 첫 번째가 민족적인 특성을 옹계 살리는 것이다. 이는 무용 전반에 짙은 민족적인 정취가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무용을 생활과 밀착시켜 생활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인민의 생활 속에서 테마와 소재를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북측만의 독특한 무용 갈래인 ‘생활무용’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²⁶⁾

민요춤 〈돈돌라리〉처럼 전통에 근거하여 창조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가령, 민요를 바탕으로 리듬을 타며 춤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독특한 손동작과 걸음걸이 등은 저절로 흥이 나는 우리 춤의 멋을 자아내고 있다. 거기에 〈돈돌라리〉가 “달래춤”에서 전래된 이야기를 오브제로 활용하여 나물을 캐는 여인들, 또는 바가지를 뒤집어 놓고 두드리는 모습 등은 〈돈돌라리〉의 지역성과 역사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춤인 것이다. 춤동작, 음악, 오브제, 세련된 무대구성, 의상 등으로 지역과 함께 짙은 소품의 공연콘텐츠를 창조, 예술브랜드화 하였으며 콘텐츠개발 네트워크를 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예술가들의 작업과 많은 횟수의 공연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창조적인 민요춤 콘텐츠는 앞으로 여러 민요춤을 모듈화시켜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공연 뿐 아니라 교육적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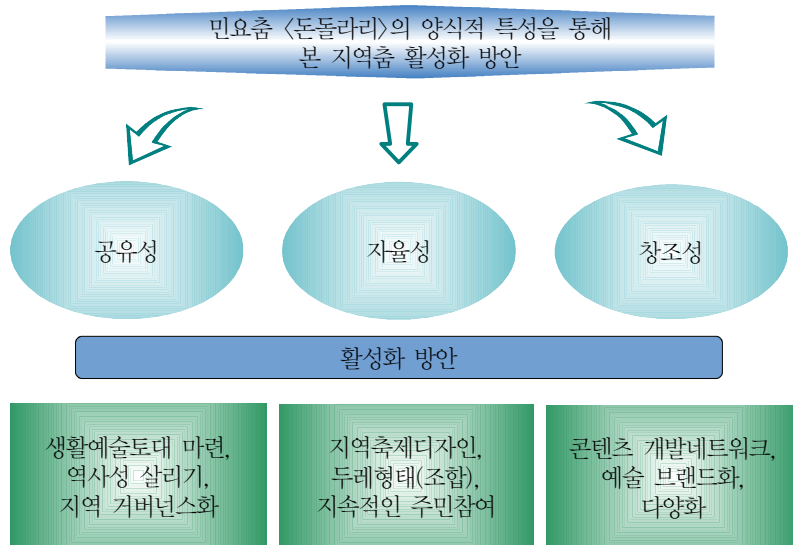
22) 김채원(2017), 북한춤의 전통성과 현대성에 관한 일고찰, 『무용역사기록학』 47, p.143.

23) 김주봉은 1932년생, 함경남도 단천시 출생이다.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등의 농악무를 결합해 ‘우리식 농악’을 만들었으며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민속춤을 발굴과 발전, 이를 통한 창작이 200여 작 될 정도로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24) 국립국악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ugak1951&logNo=221136264754>, 2018. 8. 27.〉.

25) 김정이(2011), 평온한 커뮤니티에 뛰어난 불편한 아트, 국민대학교 문화예술 교육콘텐츠 포럼(2011. 11. 24.), p.9.

26) 김채원(2017), 북한춤의 전통성과 현대성에 관한 일고찰, 『무용역사기록학』 47, p.132.



〈그림 12〉

IV. 결 론

“온고이 지신(溫故而知新)” 즉 “역사는 순환하기 때문에 옛것을 알면 미래를 안다”의 가르침으로 시대를 파악할 때, 이전에 행해지던 가령, “향약, 두레, 품앗이” 등과 같은 한마음을 살리는 “인내천(人乃天)”사상, 정신철학이 이미 각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민요춤에 깃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민요춤은 민요라는 각 지역의 역사적 근거와 함께 문화와 예술적 스토리를 지니며 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활·문화·예술’이라는 키워드가 공존하고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민요춤 <돈돌라리>에 나타난 문화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민관(民官)거버넌스에 의한 지역주민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유성,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커뮤니티 문화형성의 자율성,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문화예술콘텐츠 개발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창조성 등 ‘생활·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는 지금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순발력 등 마음 챙기는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요춤<돈돌라리>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 본 지역춤 활성화의 방안은 첫째, 민요춤과 같은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려 생활예술로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때 필요한 부분이 관과의 거버넌스, 민간 주체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거버넌스로서의 공유화이다. 특히 민요춤 <돈돌라리>와 같은 민속무용을 강조하는 북한의 예술정책은 민족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념과 함께 민족무용의 전형성을 살리고 공유화시킨 좋은 예가 된다 하겠다.

둘째, 각 지역에 공유가 된 지역춤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민요춤으로 활성화된 지역춤축제가 지속하려면 두레형태(조합)의 “따로 또 같이” 생활실천 철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지역의 잠재적 자원의 조사와 발굴, 거점 공간의 확보와 조성, 다양한 콘텐츠 기획,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의 활성화, 유지와 지속가능을 위한 운영체계

가동, 사업성을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획, 연구, 컨설팅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²⁷⁾

셋째, 지역예술(community art), 지역춤 활성화의 견지에서 각 지역을 살리고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개발 네트워크형성은 필수불가결하다. 활성화 방안으로 이미 다양화가 되어 있는 각 지역별 민요춤을 개발·창조하여 브랜드화 하는 것이다. 가령, 민요춤〈돈돌라리〉의 발생은 함경남도 북청지방에서의 달래춤과 민요 〈돈돌라리〉가 융합한 지역춤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춤이 무대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좋은 콘텐츠가 되고 북한춤의 대표성을 갖게 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창조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각 지역별 민요춤과 같은 다양한 지역춤들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조하여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양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각 지역춤을 모듈화 하는 작업을 토대로 하여, 교육·공연 등 콘텐츠개발 네트워크의 다각적 시도를 통한 예술 브랜드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요춤 〈돈돌라리〉는 함경남도 북청군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놀이와 즉흥적 요소와 함께 운무형태를 지닌 대표적인 지역춤이라 할 수 있다. 민요춤 〈돈돌라리〉가 전파된 유형에 따라, 또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요춤 〈돈돌라리〉의 공유성, 자율성, 창조성 등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 지역춤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역사성을 살리고 생활예술 토대를 마련하는 지역 거버넌스화, 지속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두레, 조합, 지역축제 등을 디자인하는 것, 각 지역춤의 다양화에 따른 창조적인 예술 브랜드를 만들고 콘텐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구축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융고개금(融古開今)의 역사철학이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별 다양한 민요춤들의 다각적 개발 등 각 지역춤 활성화방안을 점검하는 후속연구들의 방향성과,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페러다임의 변화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27) 이선철(2018),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대한무용학회』 제16회 국내학술대회발표논문, p.27.

■ 참고문헌

- 김내창(1992). 『조선풍속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 김정일(1990). 『무용예술론』.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해창(역)(2014). 『디자인이 지역을 바꾼다』. 서울: 미세출판사.
- 오을자(2018). 『철학과 함께 춤을』. 서울: 북마크.
- 김수인(2018). 문화예술교육사와 무용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조사. 『대한무용학회』 제16회 국내학술대회.
- 김정이(2011). 평온한 커뮤니티에 뛰어든 불편한 아트. 국민대학교 문화예술 교육콘텐츠 포럼.
- 김채원(2017). 북한춤의 전통성과 현대성에 관한 일고찰. 『무용역사기록학』, 47: 124-148.
- 리만순(1987). 명곡과 무용창작. 『조선예술』, 1: 39.
- 박경선(2010). 25현 가야금 3중주를 위한 <돈돌나리>의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북문화재단(2017). 성북문화재단사업 운영 및 성과연구 결과보고서.
- 오레지나(2017). AI시대 무용교육의 전문성과 핵심역량. 『한국무용교육학회』, 제 24회 학술심포지엄.
- 용호성(2012). 문화정책 맥락에서의 커뮤니티 아트. 『미술세계』, 337.
- 유승희(2017). 민요주제의 25현 가야금 작품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진, 홍성태(2016). 자치민주주의의 사회적 요건.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논문집』.
- 이선철(2018).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대한무용학회』 제16회 국내학술대회.
- 이애현(2014). 민요춤 연구. 『한국무용연구학회』, 32(3): 235-258.
- 전경욱(2002). 북한의 전통공연예술의 전승양상. 『민족무용』, 1: 133-171.
- 최영란(2002). 북한 가무놀이 돈돌라리의 특성과 남북 재현비교. 『체육사학회지』, 9: 1-15.
- 최승근(1979). 민족무용의 본색을 살리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예술』, 5: 25-27.
- 무용-돈돌라리. <<https://www.youtube.com/watch?v=mt24cumH1Ec&t=4s>, 2018. 6. 18.>.
- 국립국악원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ugak1951&logNo=221136264754>, 2018. 8. 27.>.
- 서정욱(2018년 8월 27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대회 28일 속초에서 개막.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8271005208049>, 2018. 8. 31.>.
- 속초문화원 홈페이지. <http://sokcho-culture.com/scculture/?cate_depth=4&did=3154&module=view&page=2&parent_num=401300000&seq=1423804096, 2018. 7. 10.>.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2018. 5. 15.>.
- 한국자원봉사문화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_culture&logNo=221329914465, 2018. 8. 8.>.

논문투고일 2018. 9. 15
심사일 2018. 9. 29
심사완료일 2018. 10. 13

A Study on Measures to Facilitate Regional Dances Based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ance of the Folk song “Dondolrari”

Lee, Mi Young

Professor of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emphasiz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ance of the folk song. The study aim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facilitating regional dances by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nce of the folk song dance “Dondolrari” that evolved from a regional dance into a leading performance content through re-creation. “Dondolrari” is a leading regional dance in the form of a circle dance with play and impromptu elements, which originated in Bukcheong-gum, Hamgyeongnam-do.

As the research method, the style of “Dondolrari” was examined in terms of commonality, autonomy, and creativity through a literary review and image analysis, and measures for facilitating regional dances were investigated. In the study, the measures for facilitating regional dance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Dondolrari such as commonality, autonomy, and creativ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semination of “Dondolrari” .

Keywords: Folksong dances(민요춤), Dondolrari(돈돌라리), Cultural Characteristics(문화적 특성), Regional Dances(지역춤), Vitalization(활성화)